

은혜 언약 왕하 25:1-7

본래 에덴동산에서는 인간이 언약만 지키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구조였다. 그런데 그 언약이 깨지므로 저주가 임하고 지옥에 가는 일이 생긴 것이다. 그러나 언약만 지키면 된다는 것은 지금도 그대로 살아있다. 아무것도 필요 없고, 오직 그 이름 하나로만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피 안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구원도 그 안에 다 있다는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깨야 하고 정복해야 하는데, 그것도 그 약속의 피 안에 있다. 그런데 그 때 이후로, 이 언약을 가진 사람이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다. 그것이 언약이 깨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저주를 받고 또 지옥으로 가는 일이 생기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전해서 그 사람을 살리라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유일한 일이고 너무나 중요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는 사람을 항상 축복하는 것이다. 우리도 오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다. 필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답이다. 누구든지 응답이 필요하다. 어떻게 응답을 받을 것인가? 그 언약을 누리고 이 언약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언약 안에 있는 모든 약속을 다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1. 은혜 언약

오늘 본문은 이제 유다마저도 멸망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7절을 보면 너무 비참한 장면이다. 시드기야가 그 당시 왕인데, 그가 보는 앞에서 그의 왕자들을 다 죽이고 그 눈을 다 뽑았다. 무지막한 일이다. 그리고 놋으로 만든 쇠사슬로 채워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는데, 간 거리가 1,500KM나 된다고 한다. 한국으로 비교하면 서울 부산을 네 번 왕복하는 거리이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우상숭배하면 안된다고 했는데, 그 말을 안듣고 끝까지 가다가 이렇게 되었다. 왕하 24:15에 보면 여호야긴 왕은 시드기야의 앞의 왕인데, 이 왕도 바벨론으로 잡혀갔다. 왕의 어머니와 함께 모든 가족들, 내시들, 중요한 사람들 싹 다 잡아간 것이다. 시드기야는 이것을 봤을 것이다. 보고도 우상숭배를 끊지 않았다는 것이다. 계속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우상에게 절을 하다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성전도 완전히 다 파괴되어 버렸다. 그리고 그 안에 금으로 만든 것, 은으로 만든 것도 다 가져갔다. 기둥을 씌운 놋도 다 벗겨 갔는데, 성경에 그 놋의 무게를 헤아릴수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물론 사람도 잡아갔을 것이다. 물건 뿐 아니라. 이것을 마지막으로 열왕기하가 끝나게 된다. 그런데 열왕기하 마지막 절 27절에 보면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지 37년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머리를 들게 했다는 것이다. 시드기야왕에 대한 기록은 더 이상 없다. 끌려가다가 아마 죽지 않았을까 싶다. 기록은 없다. 그런데 그 전의 왕인 여호야긴에 대한 이야기는 써 있다. 28절에 보면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였다고 하였다. 바벨론은 많은 나라를 정복했기 때문에 많은 왕들이 와 있었는데, 그들 중 제일 높였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에게 죄수의 옷을 벗기고 항상 왕의 앞에서 밥을 먹게 했다는 것이다. 점령한 나라의 왕이 이렇게 해줄 이유는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호야긴 왕이 매일 쓸 것을 평생 공급해줬다고 한다. 이 여호야긴 왕은 시드기야보다 앞의 왕인데, 시드기야가 이 여호야긴의 삼촌이다. 여호야긴을 잡아간 후에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를 유다의 왕으로 세웠다. 그러면 시드기야는 정통왕은 아니라고 볼수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보면 시드기야의 이름은 없다. 읽어보면 여호야긴을 여고냐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할 것은 그들이 정말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

의 비참한 심판을 받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 있다는 것이다. 여전히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도 돌아보면 이런 면에서 너무나 감사하다. 신약에서는 에덴동산의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부른다. 언약인데, 그것을 행동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먹지 말라 했으니 이유를 막론하고 안 먹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언약이 깨진 이후에, 전혀 다른 은혜의 언약을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위로 지키지 않아도 구원이 깨지지 않는 놀라운 언약이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그 구원이 깨지지 않는 은혜 언약을 주신 것이다. 우리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 없이 믿음으로 완성되고 절대 깨지지 않는 은혜의 구원을 주신 것이라는 것이다. 요한복음 5:24에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한다. 그 순간 완성되었고, 그것이 절대 되돌아 가지 않고 완성되었다는 뜻이다. 저주의 원인은 죄이다. 죄가 없으면 저주는 영원히 없다. 그런데 이제는 죄가 있어도 저주가 없는 은혜의 언약을 주신 것이다.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사야 43:25에 보면 내가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다. 당신을 스스로 누구라고 했다면 나는 나를 위해서 너의 죄를 도말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너의 죄를 더 이상 기억도 안하겠다는 것이다. 예레미야 31:33에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 구원을 어떻게 해서 이루냐면 나의 법, 곧 구원에 대한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서 이 구원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옛날과 어떻게 다른가? 전에는 행위로 지켜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법, 즉 믿음,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것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속에 담는 것이다. 그래서 행위는 상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34절에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순간 용서하고 지워버리신다는 것이다. 놀라운 일이다.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도 이렇게 말씀하셨다. 신약때나 구약때나 하나님의 생각은 똑같다. 그래서 우리에게 만일 이런 은혜가 없으면 아무도 구원을 못 받는다. 우리가 믿는 순간에 구원이 완성되지 않고 그 이후에 짓는 죄로 인해 구원이 깨질수 있다면 누구 구원을 받게 될 것인가? 아무도 구원을 못 받는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서 헛 일을 하신 것이다. 이런 일은 있을수가 없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받은 이후에는 어떤 죄도 우리의 구원을 건드릴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만일 구원 이후의 죄가 완성된 구원에 영향을 줄수 없다면 믿음은 끝나는 것이다. 믿음이 회개이다.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인 것이다. 이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회개는 나의 자범죄에 대한 회개인 것이다. 이 자범죄 마저도 받은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줄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좀 조용하지만 끝까지 한 개도 남김없이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것은 아주 종교적인 소리이다. 그렇게 해서 아무도 구원 못 받는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겠는가? 그래서 회개와 관계 없이 구원 되었고, 구원 된 이후에는 회개와 관계 없이 구원 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니 죄를 지어도 관계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계속 죄를 지으면 감옥에서 죽는 것이다. 그러면 감옥에서 죽어도 천국은 가는 것이다. 죄를 지어서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도 구원은 손 못 댄다는 것이다. 그런데 또 하나는,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는 회개가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 이상해지는 것이다. 계속 갈등이 쌓이고 힘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구원 받은 자의 자범죄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지 구원과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구원과 관계 있는 회개는 처음 믿을 때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아무런 관계없다는 것이

은혜언약이다. 이 놀라운 것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다. 왕이 비참하게 당했어도 하나님은 그 나라의 왕을 이렇게 생각해주셨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누리기 바란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다 히스기야처럼 되기를 바랐다.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기 바랐다. 히스기야는 앗수르에 망한 모든 나라의 빛이 되고 유일한 응답을 받았었다. 그러나 그 때 뿐 아니라 바벨론 때에도 이런 왕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정복당한 모든 나라의 빛이 되었을 것이다. 유일성의 응답을 받았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써 놓았는데, 이 것을 전달하는 선지자 말을 듣지 않았다. 우리에게 이 말씀이 있다.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을 하나님은 보지 않고 내가 잡은 언약만 보신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 바란다.

2. 역사 인식

지나간 역사를 보는 눈이 다르면 우리 앞날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만일 우리가 역사를 보는 우리 눈이 하나님과 일치하면 우리 인생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우리는 이 시대에 시대적인 하나님의 일을 두고 시대적인 기준을 받았다. 그것이 복음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시대적인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는 이유가 있다. 성경이 그렇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대로 하신다. 지난 주에 우리가 본 말씀처럼 그들의 가나안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들어갔다면 모든 일은 과거의 일이 되었을 것이다. 오히려 추억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유와 관계 없이 그들이 가나안 땅을 가지 않았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이다. 그래서 광야에서 일어났던 모든 시험이 역전이 된 것이다. 우리 모두 성공하기 원한다. 내게 온 문제가 역전되어 성공하는 것이다. 그 답이 그 시대 사람들이 가나안 가는 것이다. 이 시대의 계획을 아는 것이다. 이것이 그 시대의 계획의 권세이다.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것을 한 사람은 무조건 정복하고 역사한다. 그러나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안하고 중간에 중단하고 도중하차하면 안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의 권세이다. 그 시대의 하나님의 계획은 그 시대의 역사이다. 그게 그 시대의 흐름이다. 이것을 따라가야 한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야 한다. 그 사람은 성공하고 승리한다. 그리고 그것이 그 시대의 축복의 길이다. 시대마다 하고 싶은 일들이 하나님 앞에 있었을 것이다. 모든 문제 역전하고 그 시대의 뱀의 머리를 깨는 일, 그 시대의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절대 계획이고 절대 축복이다. 우리는 진짜 운명같이 이 길로 들어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대적인 복음을 주셨다. 이것이 발견되고 언약이 되기 바란다. 시대적인 사명을 받기 바란다. 이것이 역사적인 일로 보이는 그 눈이 역사의식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때는 몰랐다. 바울의 시대에는 세계의 역사가 바울을 따라갔다. 교회사 뿐 아니라 세계의 역사가 바울을 따라갔다. 이유가 뭔가? 한 개다. 바울은 선택된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요셉시대에는 요셉을 따라갔다. 당대의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것이 요셉이다. 그 언약은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우습게 생각했을 것이다. 형들도 우습게 생각했다. 아버지는 마음에 담았다. 왕이 알았겠는가? 그런데 그것이 성취되는 그것으로 그 시대의 역사를 뒤집었다. 만일 이 언약이 없었다면 어찌 되었겠는가? 이 해와 달이 절하는 것으로 7년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알게 된 것 아닌가? 몰랐으면 다 죽는 것이다. 어떻게 바울이 다 알게 되었는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바울에게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방인 선교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 시대의 역사 중심에 선 것이다. 그럼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뭐를 하기 원하시는가? 그것이 내안에

있는가? 부활 메시지 4개, 이것이 예수님 오실때까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여기로 들어가는 자는 바울처럼 살게 될 것이다.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가? 전세계가 정신을 못 차렸다. 왜냐면 모세 주위에 일어난 역사 때문에. 그를 통한 복음 운동 때문에 인간이 상상도 못할 일들을 경험하였다. 그 지역의 역사를 모세 혼자 이끌고 가고 모세를 따라오는 것이었다. 왜 모든 나라들이 모세를 따라오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나? 모세에게 하나님의 복음, 소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교회가 뿐 아니라 세상 역사의 중심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 세상이 인정을 안하고 교회와 관련이 되어서 인정을 안하는 것이다. 세계 역사가 아시아에서 바울을 따라서 유럽으로 갔다고 밖에서는 인정 안한다. 그러나 세계사에서 다루지 않으면 안될 일도 있다. 루터와 그를 도운 중직자 한 사람의 이야기이다. 그것은 그 당시의 하나님의 역사였다. 이것은 세계사에서도 다루고 있다. 엄연한 사실이다. 그들이 당연히 세계사의 중심에 있었다. 우리는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들로 세워진 미국이다. 이것은 참 귀한 일이다. 기록에 의하면 배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교회를 지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웠다. 렘넬트 운동이다. 그런다음에 자기들 집을 지었다는 것이다. 우리가 신앙의 자세로서 아주 귀중한 이야기들이다.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다. 이 분들은 자기들의 신앙자유를 위해 왔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숨어져 있는 것이다. 어떻게 이것을 알수 있느냐면 그 이후의 미국을 보면 알 수 있다. 그 이후의 미국은 하나님을 위한 어떤 나라였는가? 그것이 그 사람들 통해 되어진 것이다. 그러면 메이플라워호 타고 온 사람들을 새로운 눈으로 봐야 한다. 그 당시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본 사람이 있었다면 역사가 일어났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메이플라워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느냐는 것이다. 그런 눈이 있는가? 있으면 누리면서 가야 한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수 있는 이유는, 바로 시대적인 복음 때문이다.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다. 하나님이 시대적인 선택으로 복음을 주는 데,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것을 보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 생각이 달라진다. 그래서 이 흐름을 타야 한다. 그 사람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 있었다. 아시아가 아니고 마게도니아로 가야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이었다. 이 흐름으로 237, 5천 종족이 보이냐는 것이다. 요셉을 그의 노예로 보냈다. 그것이 그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이다. 모세는 왕궁에 들어가 살았다. 어느날 살인을 하고 도망갔다. 하나님이 불려서 말씀을 줬다. 이처럼 내 인생도 그냥 끝나는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의 한 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 당연히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가? 이유는 많이 있다. 그 중에 하나, 하나님의 이 시대적인 요청을 놓치면 안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누구든지 이 흐름을 타야 한다. 놓치면 안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반드시 부활 메시지 4개는 되어지고야 마는 것이다. 이것에 눈이 열려서 기도하고 동참하는 것이다. 요약해서 표현하면 237, 치유, 서밋. 이것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계획이다. 반드시 제자운동 일어날 것이다. 모든 민족에서 이 운동을 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언약으로 잡고 가야 한다. 우리가 다 이 흐름을 타고 정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